

선율과 함께 휴식을... 올해 찾아가는 음악회 산뜻한 출발

양정포레힐즈 스위트·개금동 아이파크·연지초등서 열려

부산진구가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생활권 곳곳에서 펼치는 '2026 부산진구 찾아가는 음악회'가 6월에 산뜻하게 출발했다.

올해 첫 공연은 6월 13일 오후 6시 양정포레힐즈 스위트 아파트에서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여름날 초저녁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했다. 공연에 앞서 열린 '즉석 주민 노래자랑'은 주민들의 적극적

인 참여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고, 본 공연에서는 가수 김민창 흥소리의 열창이 이어져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또 6월 18일에는 개금동 아이파크아파트에서 올해 두 번째 음악회가 열렸다. 주민 즉석 노래자랑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가수 도하, 황태산, 아라의 무대가 차례로 펼쳐지며 음악회의 열기가 밤하늘을 밝게 수놓았다.

또 지난 20일 오후 2시 연지초등학교



양정포레힐즈 스위트



개금동 아이파크

대강당에서 열린 세 번째 음악회는 연지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겸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

됐다. 한편 부산진구는 다음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오는 6월 27일 서면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에서 개최한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2)



부산진구 2026년 서예회호대회 시상식 개최

일반·학생부 37명 수상

부산진구는 6월 8일 구청 1층 백양홀에서 '2026 부산진구 서예회호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영옥 구청장과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식전 공연으로는 부산진구 청소년 예술학교 국악반 소속 김동현(부산예

술중 3) 학생이 대금 연주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맑고 깊은 선율이 시상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품격 있게 이끌었다는 평이다.

이번 서예회호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총 3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작 37점은 백양홀에서 6월 12일까지 전시되어 일반 구민들에게도 예술의 감동을 전했다.

시상식에서 김영옥 구청장은 "흰 화

선지 위에 정성을 담아낸 모든 참가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과 예술계(605-4635)

■ 주요 수상자 명단

△최우수(일반부) 우윤진(부전동) △최우수(학생부) 김규림(초연중1) △우수(일반부) 김준여(연지동) 안현미(양정동) 이영아(양정동) △우수(학생부) 김이현(동양초5) 황지유(양성초6)

자활근로자 영화관 문화체험

120여명 참가 활력 재충전



부산진구는 6월 5일 롯데시네마 부산본점(서면롯데백화점)에서 2026년 상반기 자활근로자 문화체험 프로그램 '영화와 팝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활근로자들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 속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활근로자 120여 명이 참석해 팝콘과 음료를 즐기며 최신 개봉작 '와일드싱'을 관람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항상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자활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그 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자활주거계(605-4332)

초읍동새마을금고 '우리동네 MG갤러리'

주민에 사랑 받는 '열린 문화 사랑방' 자리 매김

부산진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개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마을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은 바로 MG초읍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임진성) 본점 2층에 자리한 '우리동네 MG갤러리'이다.

지난해 11월 12일 문을 연 이곳은 단순한 서민 친화 금융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초읍동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

다. 부산의 새마을금고 중 최초이자 유일한 갤러리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 갤러리에서는 개관 기념 전시회인 도예가 고재권 작가의 개인 기획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회가 줄을 이었다. 특히 지역에서 촉망받으면서도 대중에게 작품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공간이기도 하다.

새해 첫 기획전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7일까지 부산 청년 작



가 손유하, 김수정, 서채하 화가의 'YOUTH' 3부작 전시회가 열렸다. 또 3월 9일~31일에는 백남준 박수근 이대원 이우환 박서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는 닥종이인형으로 유명한 부



산공예명장 박봉덕 작가의 '그 시절 이야기' 종이인형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초읍동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우리동네 MG갤러리가 이웃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이자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함으로써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